

##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서 선 영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강 인\*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본 연구는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72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미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에서는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베타적 결혼가치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결혼가치관의 하위영역인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은 결혼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극-베타적 결혼가치관은 결혼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성, 연령, 결혼이미지, 결혼가치관, 결혼지원정책

\* 교신 저자 : 강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01133) 서울시 강북구 서울로49길 60,  
Tel: 02-944-5031, E-mail: drhome@iscu.ac.kr

## I. 문제 제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결혼에 대한 논의는 미래의 인구 및 사회의 존속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19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19). 일반적으로 인구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면 현재의 상태는 국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비혼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결혼을 하지 않는 추세와 더불어 결혼 제도의 존속 여부와 연결되어 문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미래보고서(박영숙, 제롬 글렌, 2015)에서는 2045년에는 결혼 제도가 낡은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미래에 결혼 제도가 존속할까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는 1999년 '21세기 사건'이라는 21세기 사회와 인간의 삶을 규정한 저서에서 2030년쯤에는 결혼 제도가 사라지고 동거 비율이 9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견했다. 과연 10년 남짓 남은 2030년쯤에는 우리나라의 결혼율이 동거율보다 낮게 나타날 것인가?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혼인·이혼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13세 이상 남녀 중 결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1%로 나타났다. '결혼을 해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의 비율이 2010년 64.7%, 2012년 62.7%, 2014년 56.8%, 2016년 51.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져 이제는 결혼은 당위적 규범이 아닌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보

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다(통계청, 2019).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속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은 결혼제도의 존속 및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과 연결되어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여러 사회학자들이 언급하였던 현대사회로의 변화가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여기게 된 점과 같이(앤서니 기든스, 2003; 율리히 벡, 엘리자베스 벡, 1999) 한국 사회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에서 '개인의 선택사항'이라는 개인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은 경험적으로 주지의 사실이며, 결혼기피 및 결혼 지연 현상, 그리고 비혼 및 1인 가구의 증가가 결혼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결과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남녀 모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2.2%)가 1위로 나타났고,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1.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10.4%),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9.0%) 등의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모두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적인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제시된 결혼지원 방향은 여전히 청년고용과 주거지원이라는 청년들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지금까지 결혼가치관 문제는 결혼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로 연구되어져 왔다. 미

혼남녀의 결혼가치관이나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이나 결혼기대연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지유, 조희선, 2014; 박주희, 임선영, 2014; 문선희, 2012)나 결혼가치관의 변화가 결혼지연 및 기피, 그리고 비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연구(강유진, 2017; 박경숙, 김영혜, 김영숙, 2005; 서정연, 2018; 양정선, 2012; 이삼식, 2006; 진미정, 정혜은, 2010)들이다. 이와 같이 결혼가치관의 변화가 결혼의향 및 의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밝혀왔지만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사회문화적 구조변화가 가치관의 인식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낸다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별, 그리고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세 가지 변수는 미래 결혼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성주류화(gender streaming)에 입각한 정책 마련의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결혼가치관이 코호트적 특성으로 접근할 문제인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를 제고시킬 교육적 대응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현 결혼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래의 결혼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 1. 성, 연령,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

결혼시기를 지연시키거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결혼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요인과 결혼이 지니는 가치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다. 우선 사회구조적 요인을 살펴보면, 1990년 이전에는 교육기간이 끝나고 취업과 결혼으로의 과업 수행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990년 이후에는 결혼과 출산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생애과정 전환의 탈규범화가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으로의 생애과정 탈규범화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장기간의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먼저 획득하라는 합리적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남춘호, 남궁명희, 2012).

학력과 취업형태는 결혼의 기회비용과 관련되는데, 특히 성역할 분리 규범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과 취업형태가 남녀에 따라 결혼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20대와 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이재경, 김보화, 2015) 연구를 보면, 고학력 여성들은 비교적 풍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아래 완벽한 결혼을 기획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정 배경을 지닌 저학력 여성들은 결혼 자체가 불안정한 독립이 될 수 있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게 된다. 결국,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배경 및 학력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우해봉(2009)과 김경화

(2004)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남성의 경우 교육과 취업은 결혼 기회를 높이는 자원으로 작용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 지위를 수용하는 여성은 결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불안정한 노동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은 결혼보다는 경제적 지위 획득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부정적 경제상황의 해결책이 되기도 하고 미래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기회 비용으로 작동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선택 구조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 결혼가치관이란 동일 세대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형성하는 결혼 및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 기능과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혼가치관은 이전에는 가족중심주의를 기반으로 가계계승과 같은 제도적, 규범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면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가치로 변화되어 왔다(박민자, 2004). 하지만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대로 결혼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북서유럽의 국가들(프랑스, 스웨덴 등)보다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남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탈리아, 한국 등)에서 결혼기피 현상과 저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한국에서 결혼은 개인적 가치로 변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은기수, 이윤석, 2005). 김혜경(2013)의 연구에서 현 우리 사회의 가족주의는 본인 가구의 경제 유지가 더 강조되고, 양육 등에서 원 가족의 도움을 받는 도구적 가족주의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들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제도적 가족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은기수, 2004). 그렇다면 현재의 결혼기피 및 결혼 지연 현상은 가족이 지니는 가치가 약화되어서가 아니라 성역할 분리 규범에 따른 여성들의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즉, 성에 따라 결혼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58.8%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그러한 응답 비율이 45.3%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조사에서 남성이 74.5%, 여성이 64.7%로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전체적으로 매우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단순히 결혼가치관의 변화로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르게 남녀 모두 전체적으로 결혼의향이 감소하고 있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또한 Sun Young Seo(2015)의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계획이 희망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결혼 포기 이유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담론과 이미지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담론 때문에(40.2%)',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33.9%)', '결혼보다는 개인의 커리어 개발에 관심이 더 많아져서(35.6%)', '혼수 등 결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21.8%)', '결혼에 따르는 의무와 역할이 부담되어서(17.2%)'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47.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담론 때문에(29.5%)',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25.9%)' 순이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결혼보다 개인의 커리어 개발에 관심이 더 많아져서(58.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결혼 후 생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담론 때문에(51.2%)'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대학생들은 대중매체에서 재현되어지는 결혼생활의 모습에 대해 일과 가족에 지친 모습, '지옥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며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모습, 가족에게서 해방된 자유로운 모습을 동경하는 태도 등을 떠올리게 된다고 하며 대중매체가 결혼생활을 해학적이지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독신생활을 집중 조명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통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었고, 독신생활을 위한 제품, 싱글들을 위한 마케팅이 부각되어지며 싱글친화적인 문화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한금윤(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연애와 결혼관을 형성하는데 대중매체, 또래집단, 가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대중매체에서 재현해내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나 담론은 결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결혼이미지는 결혼에 대한 총체적인 심상으로서 결혼에 대해 갖는 정의적, 인지적

수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유가효, 1989), 결혼이미지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상호작용, 부부관계 등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 생성되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 대중매체 등을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상이 일반화된 태도를 의미한다(박은선, 2008). 결혼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과 배우자와의 낭만적인 결혼생활을 기대하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은 높았으며, 자신의 일과 자아개발을 더 중요시하는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이지영, 2015). 즉, 이와 같이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 연령 및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성주류화와 코호트의 특성, 결혼이미지에 관한 교육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2. 결혼 지원 정책

우리나라에서 결혼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200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이 되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서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만혼 및 비혼이 지적되어 온 것은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연령이 늦춰지면 실제 가임 시간이 단축되어 출산력 저하와 연결된다는 논리에서 출발되었다(이삼식, 2015; 이상호, 이상현, 20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결혼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관련 정책과제들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라는 분야에서 '신혼부부 출발 지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이라는 정책과제를 통해 시작되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분야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

비스 체계의 제공'이라는 정책과제들이 추진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과제로 청년 고용과 주거지원이라는 큰 계획아래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결혼지원정책들은 제1차에서는 저소득 가정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한계, 제2차에서는 맞벌이 가정에 집중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에 주를 이루어 미혼이 주요 정책 대상이 아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

〈표 1〉 제1차, 제2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결혼 지원 내용

제1차(2006~2010년)	제2차(2011~2015년)	제3차(2016~2020년)
<p>〈신혼부부 출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출산 주 연령층 대상 결혼 정보 제공 및 지원제도 도입</li> <li>●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 지원</li> </ul>	<p>〈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li> <li>● 결혼장려를 위한 사회적배려 강화</li> <li>●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li> </ul>	<p>〈청년 고용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li> <li>● 민간청년 일자리 창출 적극지원</li> <li>●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및 해외 일자리 영토 확대</li> <li>● 주된 일자리로서 중소기업 제고</li> <li>● 청년의 기술 창업 활성화</li> <li>●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li> <li>●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li> </ul> <p>〈주거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li> <li>● 학생 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li> <li>● 신혼부부 주택마련자금 지원강화</li> <li>●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li> </ul>

자료: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회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제2차 계획에서 정책대상이 기혼가구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이 이루어짐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여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제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나 주거 마련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나 1인 가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안타까운 점은 가치관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 이유로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혼남성은 '결혼생활 비용 부담' (14.5%),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 (9.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9.1%), '소득이 적어서' (7.3%), '실업 상태여서' (6.4%) 등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은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12.9%),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 (11.8%),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 (11.2%), '소득이 적어' (5.6%), '결혼생활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5.6%),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 (5.1%) 등으로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이유로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결혼 지연이나 결혼을 포기하는 '내 집 마련'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 마련'이라는 이유는 주로 남성들에게서 나타난 반면, 여성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들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라면 보다 세분화된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 연령,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관련 정책과는 보다 차별화된 결혼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별에 따라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에는 차이가 있는가?
- 2) 연령에 따라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272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0명(26%), 여성이 201명(74%)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별로는 20~30세가 69명(25%), 40~59세가 203명(75%)로 구성되어 있다(표. 2).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내용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71	26%
	여자	201	74%
연령	20~39세	69	25%
	40~59세	203	75%

## 2. 측정도구

### 가. 결혼이미지

결혼이미지 척도는 유가효(1989)의 결혼이미지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10개의 형용사를 통해 결혼에 대해 가지는 느낌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결혼이미지 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0개의 변수가 1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나타났고, 모든 변수가 공통성이 .4 이상으로 10개 변수 모두 사용하여 변수 계산하였고, 누적분산율은 78.71%로 나타났다. 결혼이미지의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미지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 나. 결혼가치관

결혼가치관 척도는 김지유와 조희선(2014)이 작성한 척도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20개의 문항 가운데 공통성이 .4 이하인 7개의 변수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3개의 변수로 변수 계산하였고,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소극-배타적의 3개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누적 분산율은 56.90%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63,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안정-낭만적결혼가치관은 .70, 보수-도구적결혼가치관은 .79,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67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문제

를 결정할 때 당사자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일이다', '결혼은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다', '결혼을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결혼하기에 좋은 나이는 정해져 있다',

'출산을 생각한다면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내 삶에서 결혼보다는 일과 자아개발이 더 중요하다', '결혼 생활은 실패할 수도 있다.', '결혼 생활보다 자유로운 생활이 더 좋다', '친한 친구나 직장동료가 배우자보다 낫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22를 사용하였고,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검사, 그리고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별로 가족건강성과 결혼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t-test를 실시하였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성별, 연령에 따른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에 따라 결혼이미지 및 결혼가치관 전체와 하위요인인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소극-배타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표 4]와 같다.

먼저 [표 3]의 성별에 따른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이미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p < .001$ ) 나타났고, 결혼가치관 전체( $p < .001$ )와 하위요인인 보수-도구적( $p < .001$ )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 중 소극-배타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p < .05$ ) 나타났고, 안정-낭만적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결혼에 대한 이미지에서 남성보다 긍정적인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표 3〉 성별에 따른 결혼이미지, 결혼가치관의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결혼이미지		남	71	4.30	.75	5.65***	.00
		여	201	3.64	.87		
전체		남	71	3.88	.42	4.65***	.00
		여	201	3.62	.39		
결혼 가치관	안정-낭만적	남	71	4.60	.56	1.86	.06
		여	201	4.47	.47		
	보수-도구적	남	71	3.90	.70	6.28***	.00
		여	201	3.22	.81		
	소극-배타적	남	71	2.66	.82	-2.24*	.02
		여	201	2.90	.74		

\*  $p < 0.5$ , \*\*  $p < 0.01$ , \*\*\*  $p < 0.001$ 

〈표 4〉 연령에 따른 결혼이미지, 결혼가치관의 차이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t	p
결혼이미지		20-39	69	3.83	.86	.23	.81
		40-59	203	3.80	.90		
전체		20-39	69	3.62	.46	-1.61	.10
		40-59	203	3.72	.39		
결혼 가치관	안정-낭만적	20-39	69	4.46	.56	-.73	.46
		40-59	203	4.51	.47		
	보수-도구적	20-39	69	3.24	.86	-1.83	.06
		40-59	203	3.45	.82		
	소극-배타적	20-39	69	2.86	.75	.34	.73
		40-59	203	2.83	.77		

\*  $p < 0.5$ , \*\*  $p < 0.01$ , \*\*\*  $p < 0.001$

이미지가 더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유와 조희선, 2014, 이지영, 2015).

[표 4]에서 볼 수 있듯 결혼가치관에서 하위요인인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보수적 가치관을 지니며 동시에 결혼을 출산이나 안정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보다는 일이나 자아개발, 자유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가치가 더 높은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결혼 가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더 높고,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더 낮다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정유화, 2018).

반면에 연령에 따른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 전체 및 하위요인(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별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혼이미지의 평균점수가 4,50대에 2,30대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4,50대가 생애과정에서 획득한 결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가치관 점수에서 안정-낭만적 하위영역과 보수-도구적 하위영역에서는 4,50대가 2,30대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소극-배타적 하위영역에서는 4,50대가 2,30대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른 결혼가치관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문화가 결혼에 대

해 도구적이고 낭만적인 측면보다는 결혼을 소극적이고 배타적으로 생각한다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 2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의 각 변수간의 관계 정도와 관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안정-낭만적, 보수-도구적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 중 소극-배타적 가치관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70이하로 관별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

〈표 5〉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변인명	1	2	3	4
1. 결혼이미지	-			
결혼 가치관	2. 안정-낭만적	.52**	-	
	3. 보수-도구적	.66**	.39**	-
	4. 소극-배타적	-.42**	-.22**	-.29**

\*p < 0.5, \*\*p < 0.01, \*\*\*p < 0.001

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결혼가치관의 경우, 1단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전체 결혼가치관을 6.8% 설명하고 있고, 2단계에서 추가한 결혼이미지는 2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결혼가치관에 대해 결혼이미지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결혼이 개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한다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또한 결혼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

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은 1.7%인 데 반해 결혼 이미지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에 대한 27.8%의 설명력을 보였다.

다음으로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결혼은 자녀출산이 가능한 제도이며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생각의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는 성과 연령, 결혼이미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1단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13%의 설명력을 가진다면 2단계 결혼이미지를 추가했을 경우 45.9%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표 6〉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전체 결혼가치관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eta$	t	$\beta$	t	$\beta$	t	$\beta$	t
(Constant)		31.455***		17.875***		28.492***		15.370***
성별 <sup>a</sup>	-.221	-3.703***	-.068	-1.201	-.122	-1.998*	.057	1.024
연령	.176	2.953**	.159	2.982**	.064	1.039	.044	.830
결혼이미지			.462	8.286***			.541	9.843***
R2	.068		.258		.017		.278	
R2 Change	-		.190		-		.261	
F	9.764***		31.035**		2.270		34.347***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eta$	t	$\beta$	t	$\beta$	t	$\beta$	t
(Constant)		17.248***		5.502***		14.528***		15.359***
성별 <sup>a</sup>	-.338	-5.866***	-.136	-2.836**	.159	2.612*	.032	.529
연령	.191	3.312**	.168	3.698***	.010	.170	.025	.432
결혼이미지			.607	12.768***			-.384	-6.477***
R2	.130		.459		.026		.158	
R2 Change	-		.329		-		.132	
F	20.178***		75.896***		3.578*		16.733***	

\*:  $p < .05$ , \*\*:  $p < .01$ , \*\*\*:  $p < .001$

a: 성별(남성=0, 여성=1)

또한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결혼보다는 일과 자아개발, 자유로운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의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은 2.6%의 설명력을 가진다면, 2단계 결혼이미지를 추가했을 때, 15.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결혼이미지의 영향력은 결혼가치관 요인 중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을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장 적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과 연령에 따라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전국에서 성인남녀 27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혼이미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가치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이미지가 더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박혜림, 2012 ; 이승혜, 2018).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적 결혼가치관이 높고, 소극적 결혼가치관은 낮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정유화 2018).

둘째, 연령에 따른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른 결혼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정유화, 2018). 또한 연령에 따라 안정적, 보수적 결혼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10대가 30대보다 소극적 결혼가치관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정차숙, 2019), 본 연구결과에서 연령에 따른 결혼가치관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소극적-배타적 결혼가치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향과 일치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결혼가치관의 하위요인인 안정-낭만적 결혼치관은 결혼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은 성, 연령, 결혼이미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은 결혼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 결혼이미지가 더 높은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과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이미지가 부정적일수록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이지영, 2015).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에서 보다 더 결혼에 대한 탈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남성보다 더 탈전통적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선택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결혼의 기회비용은 우리 사회의 강력한 성역할 규범으로 인해 결혼을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안미영(2016)의 연구에서도 성역할에 기반하여 여성의 경제적 힘이 들봄 노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크게 작용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정화(2014)의 연구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혼상태의 동거에 대한 동의가 낮게 나타났다. 즉, 정상적인 결혼규범에서 벗어난 상태인 경우 여성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라는 비용을 감당하기 싫어 결혼에 대한 탈전통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의 기회비용으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도구적인 결혼가치관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결혼의 기회비용은 우리 사회의 강력한 성역할 규범으로 인해 결혼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이 높은 것을 볼 때 20대와 30대가 40대와 50대에 비하여 보다 더 결혼에 대한 탈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혼인여부에 따른 결과는 아니기에 기혼과 미혼 여부에 따른 탈전통적 가치관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결혼이미지는 안정-낭만적 결혼가치관,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 모두에서 성과 연령보다 더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미지의 영향력은

결혼가치관 하위요인 중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결혼이미지가 결혼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아실현 및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배타적인 가치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다른 결혼가치관 하위요인에 비해 크지 않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미지는 결혼을 도구적 가치로 인식하는 보수-도구적 결혼가치관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자녀출산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도구적 가족주의 가치관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미래 결혼을 미루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요인을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결혼제도로 진입하려는 남성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gender)의식이 반영되어 여성들의 결혼 여부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같이 전통적인 결혼형태 뿐 아니라 동거 및 시민연대협약까지도 결혼 가정과 거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동거계약제도(PACS)는 결혼 및 이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잡았고, 동거계약제도(PACS) 도입 이후 혼외 출산 자녀에 대한 사회적 양육책임도 강화되어 전반적인 합계출산율 상승을 이끌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또한 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에 힘쓰며,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을 바꾸는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 실천적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결혼을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를 재현해 내는 대중매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이미지는 일차적으로는 가족 간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고, 그 외 타인들 및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되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쳐 개인의 결혼에 대한 기대나 결혼의향에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 Sun Young, Seo(2015)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중매체에서 결혼에 대한 이미지를 '무담'이나 '지옥' 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기회비용을 확대하는 것은 '소극-배타적 결혼가치관'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대한 긍정적인 선택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성과 연령만을 조사한 결과로 소득, 학력, 건강, 종교 등 기타 인구학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결혼이미지 이외에 다른 사회 문화적 변수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으로 결혼이미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성과 연령, 결혼이미지와 결혼가치관에 관한 경험

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해 다양한 변수들을 확대하여 결혼가치관에 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강유진 (2017). 성인남녀의 비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2), 241-256.
- 김경화 (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결혼: 대졸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3), 175-199.
- 김지유, 조희선 (2014). 대학생의 이성 관련태도 및 결혼가치관과 결혼이미지가 결혼기대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2), 123-143.
-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2), 101-141.
-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91-128.
- 문선희 (2012). 미혼여성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3), 5-25.
- 박경숙, 김영혜, 김영숙 (2005). 남녀 결혼시기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 박민자 (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 16(1), 109-135.

- 박영숙, 제롬 글렌 (2015). 유엔미래보고서 2045. 서울: 교보문고.
- 박은선 (2008). 대학생의 결혼이미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낭만적 애착의 관계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림 (2012).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결혼이미지와 결혼 기대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15669&page=1](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15669&page=1) 에서 2019.10.1. 인출.
- 보건복지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https://www.kefplaza.com/labor/manage/soc\\_view.jsp?nodeId=291&idx=9725&prod\\_id=14845&pageNum=4&urlparam=](https://www.kefplaza.com/labor/manage/soc_view.jsp?nodeId=291&idx=9725&prod_id=14845&pageNum=4&urlparam=)에서 2019.10.1. 인출
-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29333&page=1](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9&CONT_SEQ=329333&page=1) 에서 2019.10.1. 인출
- 서정연 (2018). 미혼 남녀의 결혼의지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69, 371-393.
-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2, 13-40.
- 양정선 (2012). 독신의 선택과 노후준비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23-148.
- 앤서니 기든스 (2003). 현대사회의 성 사랑에 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황정미 외역). 서울: 새물결.
-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 울리히 벡, 엘리자베스 벡-게른스하임 (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사랑, 결혼, 가족, 아이들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근원적 성찰-. (배은경 외역). 서울: 새물결.
- 유가효 (1989). 청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상호작용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 및 자녀의 결혼태도 간의 관계: 서울시 고등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은기수 (2004). 한국인의 가족가치: 5개국 비교 연구. *정신문화연구*, 27(3), 137-182.
- 은기수, 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삼식 (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3(2), 95-140.
- 이삼식 (2015). 저출산의 뒷에서 벗어나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 이상현 (2011).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17(3), 131-166.
- 이승혜(2018). 20-30대 미혼남녀의 성인애착과 외내현적 자기애가 결혼가치관 및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 김보화 (2015). 2,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41-85.

- 이지영 (2015). 성인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결혼이미지가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 박주희 (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자크 아탈리 (1999). 21세기 사전-자크 아탈리의 미래읽기. (편혜연 역).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정유화 (2018). 미혼남녀의 가족건강성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미지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차숙 (2019).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 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통계청 (2018). 2018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 통계청 (2019). 2018년 출생·사망 통계.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비혼 동거 커플의 증가와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글로벌 사회정책브리프, 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금윤 (2015). 대학생의 연애, 결혼에 대한 의식과 문화 연구- 언론보도와 대학생의 '자기서사' 쓰기의 간극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28, 7-30.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25-59.
- Seo Sun Young (2015). Analysis on the Needs for Improved Effectiveness of Policies o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 care - with a focus on the survey assessing the awareness on such policies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ir 20s-. *Information*, 18(9), 3925-3932.

투고일자: 2019. 10. 22.

심사일자: 2019. 11. 15.

게재확정일자: 2019. 11. 28.

## A Study of the Effect of Gender, Age, and Marriage Images on the Marriage Value

Sunyoung Seo

Ajou University

In Kang

Seou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gender, age, and marriage images on the marriage value. For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to 272 adults living in Korea from March 1 to June 15, 201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in terms of the difference of marriage image and marriage value according to gender, it turned out that men were relatively more positive than women in marriage image. For the value of marriage, it was shown that 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onservative-instrumental marriage value than women, and that wome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assive-exclusive marriage value.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rriage value and marriage images according to age. Third, looking in the influence of gender, age and marriage image on marriage values, it was found that marriage imag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table-romantic marriage value which is a sub-domain of marriage value, and that gender, age and marriage image al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nservative-instrumental marriage values. It also showed that marriage imag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assive-exclusive marriage value.

Keywords : *Gender, Age, Marriage image, Marriage value, The marriage support policy*

